

연꽃케이크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

대한불과회(大韓佛菓會)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지난 5월 1일 천안소년교도소 강당에서는 두 손을 한데 모은 재소자와 불교 신자 등 400여명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삼귀의례(三歸儀禮)'를 행했다. 그리고 잠시 후 참가자들의 '반야심경' 독경에 이어 중생을 다 건지고, 번뇌를 다 끊으며, 법문을 다 외우고, 불도를 다 이루겠다는 내용의 '사홍서원'을 가졌다.

교도소라는 특수한 공간 속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한불과회(회장 정관수)가 마련한 범회 및 위문 공연. 대한불과회(大韓佛菓會 이하 불과회)는 또다른 후원 단체인 천안사암연합회, 대한불자가수회와 공동으로 범회와 노래 위문 공연을 실시했다. 또 미리 준비한 빵과 범회경 만화책 등을 재소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재소자들은 행사 전 다소 가라앉은 모습이었지만 불교 신자 가수들의 공연이 시작되면서 치층 표정이 밝아졌다. 이곳을 방문한 12명의 가수들은 재소자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가수들은 아니었다. 하지만 흥겨운 노래가 이어지면서 푸른 수의 속에 몸을 마음과 결박당했던 재소자들도 이날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즐거움을 같이 했다.

"저희 모임의 결성 목적 중 하나가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알리고 자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불과회는 오래전부터 이런 사회 시설을 방문해 포교·교화 활동을 펼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제과제빵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 제과인으로 구성된 이색 모임

이번 행사를 주도한 정관수 회장이 설명하는 불과회의 활동 내용이다. 이름에서 나타나듯 불과회는 1994년 5월 결성된 불교 신자 제과인들의 모임이다. 이에 따라 불과회의 결성 목적과 활동 역시 포교와 회원의 친목에 중점을 두는 한편

불교 소재 제품의 개발 및 보급과 사회 봉사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불과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포교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교 소재 빵·과자 제품의 보급이다.

알려진 대로 크리스마스는 오래전부터 베이커리 업계의 특수절로 정착해 제과점의 매출 신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따라서 불과회는 크리스마스 케이크처럼 불교를 소재로 한 제품이 업계의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모임 결성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과 제품의 개발 및 보급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과회는 그동안 SIBA '95에서 과자 공예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정관수 회장의 불상 공예 제품을 비롯해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을 다양한 형태로 응용한 데커레이션케이크,



▲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불과회의 포교 활동.



▲ 연꽃 케이크 확산을 위한 기술 세미나



▲ 불과회는 석가탄신일이 업계의 특수절로 자리잡도록 힘쓰고 있다.



대한불교회 연혁 및 활동

- 설립 : 1994년 5월 불교 신자 제과인으로 결성
- 활동 : 1. 불교예술대전 제품 출품 2. 수덕사 연꽃케이크 실연 3. 육사졸업식 연꽃케이크 제공
4. 대한불자가수화와 자매 결연 5. 불교 포교 및 재소자 교화 활동
6. 재소자 제과 제빵 교육 자원 봉사

▲ 주요 활동 중의 하나로 불교 소재 제품을 보급하고 있다.

연근과 연잎을 이용한 빵, 쿠키, 카스텔라 등의 제품을 선보였다. 불교 행사 및 기술 세미나 실시를 통해 알려지게 된 이들 제품은 새로운 소재의 발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불교회는 그동안 제과업을 일반인에 널리 알리는 데에도 일조했다. 모임 결성 초기인 94년 조계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불교예술대전'에 참가해 제과 공예 작품을 전시하고 케이크를 실연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95년 수덕사 연꽃케이크 실연 판매, 2000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의 케이크 커팅에 연꽃케이크를 제공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의 여러 단체 중에서도 불교회는 가장 돋보이는 존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예 제품이나 빵·케이크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타 단체의 포교 활동보다 특색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 편입니다."

불교회는 이런 불교 관련 행사를 비롯해 석가탄신일에 사찰에서 신자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행사용 제품으로 빵, 쿠키, 카스텔라, 연꽃케이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불교 소재 관련 제품의 확산과 제과제빵을 일반인에 널리 알리는 한편 회원 점포의 매출 신장도 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회 봉사 활동도 불교회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불교회는 천안개방교도소와 소년교도소 등을 방문해 제과 업계를 알리고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와 교화에 앞장서고 있다. 불교회는 지난 1월에는 불교 신자 모임인 대한불자가수회(회장 남강수)와 자매 결연을 통해 공동으로 교화 활동을 벌이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연꽃케이크 매개로 포교 등 활발한 활동

결성 초기 30여명이었던 불교회의 회원은 현재 60여명으로 증가했다. 그동안의 활발한 활동과 모임의 결성 취지에 공감한 제과인들이 동참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행사가 있을 때면 바쁜 일을 제쳐 놓고 참가해 불교 소재 빵·케이크의 개발과 보급에 앞장설 정도로 구성원간의 단단한 일체감을 과시하고 있다.

우리 업계에는 많은 모임이 있지만 그 중 불교회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 모임이다. 회원이 불교 신자로만 구성됐고 연꽃케이크, 연근 카스텔라 등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병행하며 벌이는 포교 활동은 다른 모임에서는 찾을 수 없는 불교회만이 지닌 특징이기 때문이다.



정판수 대한불교회 회장

남다른 활동 내용으로 업계의 주목을 끈 불교회는 올해 획기적인 계획을 추진 중이다. 천안소년교도소 내에 제과 제빵 시설을 갖추고 재소자들을 훈련시키는 계획이 그것이다. 지난해 12월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교도소내 30여평의 공간에 제과 제빵 교육 시설이 갖추어졌고 현재 이론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 재소자 제과 제빵 교육은 법무부의 승인과 예산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불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이 교육에는 불교회 회원이 참여해 교육을 담당하고 재소자가 출소 후 취업이 되도록 해줄 계획이다.

지금까지 불교회가 전개하는 많은 활동들은 주로 회장단이 이끌어 왔다. 앞으로 불교회는 이를 보다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회원의 참여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해 올해 정기 총회에서 회원의 의결을 거친 후 기존의 홍보실 외에 기획실과 기술연구실과 섭외 부서를 신설, 모임의 활동 영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불교회는 불교 소재 제품의 보급과 이를 매개로 한 포교, 재소자 교화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해 왔다. 우리가 이 모임을 계속 주목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제과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 온 불교회의 활동이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MB**

<글/박종선 sunpark@mbakery.co.kr>